

강희업 차관, “폭염 속 택배 종사자 안전관리 최우선”

-1일 택배 현장 찾아 종사자 안전 위해 폭염 등에 철저한 대비 강조

-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안양에 위치한 쿠팡CLS 안양 1배송캠프*를 찾아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,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* (면적) 4,624평, (물량) 일 180만 박스, (종사인원) 택배기사 90명, 분류작업 100명 등

- 이번 방문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짐에 따라,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대응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.

- 강 차관은 쿠팡CLS 관계자로부터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.

- 이 자리에서, 강 차관은 “종사자가 안전해야 산업도 지속된다”면서, 장시간 고강도의 업무에 노출되는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”을 강조했다.

- 또한, “폭염 속 휴식은 선택이 아닌 권리”라면서, “고용부의 폭염 대응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, 종사자가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,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- 이어, 택배의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하며, “무더위에 이른 시간부터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, 정부도 종사자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	책임자	팀 장	최정원 (044-201-4152)
		담당자	사무관	마철훈 (044-201-4153)